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십이지상(十二支像)을 통한

심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상은

십이지상(十二支像)을 통한  
심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상은

# 인 준 서

안상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동(東)·서양(西洋)을 막론(莫論) 하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은 매우 컸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하는 궁금증은 주변의 모든 자연현상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方面)의 연구와 결과물, 창조물로 이어졌다. 이는 서양에서 천구(天球)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동물과 사물에 대치시킴으로써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占星術)로 발전하였고, 동양에서는 십이지(十二支)와 사신(四神)이라 하여 방위(方位)와 시간(時間), 계절에 각종 동물을 짝지어 상징성을 부여(附與) 하고, 그것에 맞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십이지는 방위와 시간, 계절을 의미하는 단위에서 의인화(擬人化) 되고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져 숭배(崇拜) 받았는데, 개인의 보호와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앙으로써의 십이지는 보이지 않고, 상징적인 면모만 남아, 정초(正初)가 되면 신문과 뉴스에 올해의 수호신(守護神)이라 하는 동물의 의미에 대하여 보도하고, 그 동물의 성격과 의미처럼 한 해가 잘 풀리기를 기원한다.

또, 그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격을 연관 지어 해석하기도 하며, 본인들의 띠에 적용하여, 한 해 운세를 예점(豫占)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십이지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곁에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함께 공존(共存) 해왔고,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전통문화 ‘십이지(十二支)’의 무속 신앙적, 민간 신앙적인 면모에 과거 본인의 경험과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한 바람을 담아 현대적으로 재 구성하고자 했고, 이를 한국인의 정서(情緒)에 잘 맞는 나무라는 소재에 담아냄으로써 동양적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고자 했다.

신앙적 의미와 경험을 기반으로 재 구성된 십이지 작품들이 지금 이 시각,  
피로움과 외로움에 지쳐있을 이들에게 심적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랐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십이지(十二支)의 기원(起源) .....	3
1) 십이지(十二支)의 상징적 의미 .....	4
2) 신중(神衆)으로의 십이지신(十二支神) .....	7
2. 본인 작품 분석 .....	10
1) 개인적 소망의 형상화 .....	10
2) 나뭇결의 질료 적 표현 .....	20
III. 결론 .....	30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子 (쥐)』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	12
【 작품2】 『亥 (돼지)』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8 .....	14
【 작품3】 『Drawing』 , 종이에 연필, 7.5cm×9cm, 2015 .....	15
【 작품4】 『未 (양)』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5 .....	16
【 작품5】 『恨(한) 21』 , 나무에 채색, 27.5cm×8.3cm, 2017 .....	18
【 작품6】 『恨 (한)』 , 나무에 채색, 72.7cm×60.6cm, 2015 .....	19
【 작품7】 『申 (원숭이)』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	21
【 작품8】 『辰 (용)』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5 .....	22
【 작품9】 『丑 (소)』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	23
【작품10】 『酉 (닭)』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7 .....	24
【작품11】 『午 (말)』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7 .....	25
【작품12】 『巳 (뱀)』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5 .....	27
【작품13】 『卯 (토끼)』 ,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	28

# I. 서 론

서양의 철학자 데카르트(Descartes, René: 1596~1650)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 지능을 갖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고도(高度)로 발달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을 흔히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이라 부른다.<sup>1)</sup> 하지만 백 년이 채 되지 않는 유한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외부의 압박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때 그 대상이 되어 주었던 것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곁에서 삶을 함께 해 준 동물들이었다.

동물들은 인간에게 공포의 대상(對象)임과 동시에 신앙(信仰)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토테미즘(Totemism)이라는 신앙으로까지 발전되었는데, 그러한 동물 숭배(動物崇拜) 의식은 지금까지도 신화, 종교, 민속 등 우리의 문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십이지(十二支) 동물 문화를 뽑을 수가 있다.

한국의 십이지는 시간성(時間性)과 방위성(方位性)을 수호하는 역할로서 담당하는 시간이나, 방향에서 오는 악재(惡災)를 막아주는 수호신(守護神)으로 그려진다.<sup>2)</sup>

또, 천문, 역법에서는 방위와 시간의 개념으로, 풍수, 택일, 사주, 궁합 등에서는 길(吉), 흉(凶)을 예지하는 비결(秘訣)로, 능묘(陵墓)의 호석(護石)<sup>3)</sup>, 사찰

1) 이학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수의학-임동주 수의사」, 『DailyVET』, 2018.1.24.  
<http://www.dailyvet.co.kr/news/etc/89411>

2) 천진기, 『운명을 읽는 열두 동물』, 서울대학교, 2008, p.17

3) 능묘(陵墓)의 호석(護石) :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열 석(列石)이라고도 하며, 왕이나 지배층의 봉분 유실을 막을 목적으로 봉분 주변을 감싼 석물을 말한다. 통일신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기능면과 아울러 장식적인 측면이 포함 되어 발전하였다.

(寺刹)의 불화(佛畵), 민화(民畵) 등에서는 개개인을 보호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민간 신앙적 역할로 나타난다.<sup>4)</sup>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십이지는 현대에 와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그마저 외형이 낡설고 무서워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인은 이러한 기존의 십이지를 토대로, 의미와 역할은 유지하되, 외형을 현대적으로 재 조형하여 귀엽고 대중적인, 친근한 십이지의 형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문 1장 1절에서는 십이지(十二支)의 기원(起源)과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 2절에서는 변천(變遷) 과정과 민간, 무속 신앙적인 의미의 신중 십이지(神衆 十二支) 형태에 관하여 서술한다.

2장 1절에서는 본인의 과거 기억을 바탕으로 신중(神衆) 십이지(十二支)라는 개체에 어떠한 바람을 실어 표현하였는지 서술하고, 2절에서는 십이지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재료 선택에 관한 설명, 표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

4) 천진기, 『십이지의 문화 체계』, 국립민속박물관, 2003, p.79

## II. 본 론

### 1. 십이지(十二支)의 기원(起源)

십이지(十二支)란 우리가 태어난 해의 수호 동물(守護 動物)을 부르는 말로, 모두 12가지의 동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열두 동물은 쥐(子), 소(丑), 호랑이(寅), 토끼(卯), 용(辰), 뱀(巳),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람들의 심장에 숨어있는 동물’<sup>5)</sup>로 여겨져 나(我)와 동일시되거나 신(神)으로 숭배(崇拜) 되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이지 문화는 처음부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초(太初)의 십이지는 옛 중국의 날을 셀 때 쓰던 ‘십간<sup>6)</sup>(천간 : 天干이라고도 한다.) 십이지<sup>7)</sup>(지지 : 地支라고도 한다.)에서 유래(由來) 되었는데, 이때 십 간(十 干)은 열흘을 세는 단위인 ‘순(旬)’에서 비롯되었고, 십이지는 한 해가 열두 달인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띠는 이렇게 날을 셀 때 쓰던 십이지에 “자(子)는 쥐, 축(丑)은 소, 인(寅)은 호랑이...” 하는 식으로 열두 동물과 짝을 지어놓은 것이다.<sup>8)</sup>

날짜를 의미하는 부호로서 쓰이던 십이지가 동물과 짝이 지어지고, 동물 형

5) 네이버 지식백과, 『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930&cid=46670&categoryId=46670>

6) 십간(十干) :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구성되어 있고, 천간 : 天干이라고도 부른다.

7) 십이지(十二支) :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구성되어 있고, 지지 : 地支라고도 부른다. 한 해가 열두 달인 데에서 비롯되었다.

8) 정하섭 글/이춘기 그림, 『열두 띠 이야기』, 보림출판사, 2006, p.32

상의 머리와 사람 몸의 형태로 의인화(擬人化) 되어 표현되기 시작한 후<sup>9)</sup>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 1) 십이지(十二支)의 상징적 의미

의인화(擬人化) 된 십이지(十二支)는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으로 들어와 기존의 종교이던 불교와 결부(結付) 되어 시간신(時間神), 방위신(方位神)으로의 역할(役割)을 부여받게 된다. 신이 된 십이지는 왕가의 무덤(陵墓)이나 탑(塔), 벽화(壁畫), 생활 용구의 장식 등으로 사용됐는데, 각 동물마다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고 한다.

이번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몇몇 동물들의 상징성을 살펴보고, 그 상징적 의미가 본인의 그림 안에서 어떻게 형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했다.

#### ● 쥐(子)

십이지의 열두 동물 중 첫 자리에 오는 쥐(子)는 한 번에 7~8마리의 새끼를 낳는 다산성(多産性)의 동물이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지런함, 먹을 것을 저장하는 자축성(孳畜性)의 동물이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재물, 우애(友愛), 보은(報恩), 다산(多産), 풍요(豐饒), 식복(食福), 생명력, 현명함을 상징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쥐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본인 작품 속 십이지 동물 중 가장 역동적이게 표현하였다.

9) 천진기, 『십이지의 문화 체계』, 국립민속박물관, 2003, p.69

10) 천진기, 『한국동물 민속론』, 국립민속박물관, 2003, pp.67-68

● 소(丑)

소(丑)는 대표적으로 힘(力)과 우직함(愚直)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그 성질이 유순(柔順) 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여유와 평화, 불굴의 의지, 충직함, 성실함, 어려움의 극복을 뜻한다.<sup>11)</sup> 이러한 소의 성격과 상징을 ‘묵직함’으로 표현하고자, 본인의 그림 속 소는 정적인 느낌으로 무게감이 느껴지게 표현하였다.

● 용(辰)

용(辰)은 십이지 중에 유일한 상상 속의 동물이며, 물의 신, 호국(護國), 호법신(護法神)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실존하는 동물 중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물을 중요시 생각하는 농경 사회에서 왕과 동일시된다.<sup>12)</sup>

용은 본인의 대리물로 여의주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큰 눈동자를 여의주로 표현, 소중한 듯 감싸 안은 용의 모습을 그려 내었다.

● 양(未)

여덟 번째 간지인 양(未)은 평화(平和)와 순종(順從), 참을성을 의미하는 동물로 새끼에게 젖을 먹일 때도 무릎을 꿇고 먹이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동물로 여겨졌다.<sup>13)</sup>

이러한 양의 평화와 온화, 순박함, 조직 내에서의 조화로움을 조형적 측면에서 둥글둥글한 원으로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대상은 양의 특징인 털에 적용되었다.

---

11) 위의 책, pp.101-102

12) 위의 책, pp.217-219

13) 위의 책, pp.313-315

● 원숭이(申)

원숭이(申)는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 동물이고 갖가지 만능 재주꾼이면서, 섬세한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모성애(母性愛)를 뜻하기도 하고, 건강, 성공, 수호(보호),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sup>14)</sup> 십이지 동물 가운데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이지만, 사람과 너무 닮은 모습에 재수 없는 동물로 외면당하기도 하는 이 동물을 표현해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흉내 내고 따라 하는 것의 상징적인 물체, 가면을 씌워 그려주었다. 또, 그림 안에 손을 넣어 눈동자를 잡고 있거나 바닥을 짚고 있게 함으로써 손을 사용하는 재주꾼 적인 이미지를 살려주고자 하였다.

● 돼지(亥)

마지막으로 돼지(亥)는 꿈에 나왔을 때, 용만큼 행복한 동물로 대표적인 길상(吉祥)의 상징이자 건강과 재물의 상징이며,神通력(神通力)을 지닌 동물, 재산(財産)이나 복(福), 재신(財神), 풍요(豐饒)의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sup>15)</sup>

이러한 돼지의 외형과 비슷하게 작품 속에도 크고 풍만하며, 둥근 형태로 형상화하였고, 여러 개의 가슴을 부여하여 풍요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앞에 언급한 6마리의 동물 외에도 호랑이(寅)는 진보(進歩), 독립(獨立), 모험, 투쟁을, 토끼(卯)는 장수(長壽)와 여인을, 뱀(巳)은 불사(不死)와 재생(再生), 지혜를, 말(午)은 용맹(勇猛), 권위(權威), 충성심을, 닭(酉)은 출세, 부귀공명(富貴功名), 자손 번창(子孫 繁昌)을 그리고 개는 충성심, 충복(忠僕), 의리(義理)를 상징하고 있다.<sup>16)</sup>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각 동물의 외형, 습성, 성격을 고려해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그 의미에 맞게 조각과 장식으로 사용하였

---

14) 위의 책, pp.329-330

15) 위의 책, pp.411-413

16) 위의 책, pp.137-376

으며, 새해가 되면 그해 동물의 상징적 의미를 찾아 한 해의 운수를 예점(預占)해 보고는 하였다. 이것이 현대의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운명을 미리 엿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

## 2) 신중(神衆)으로의 십이지신(十二支神)

앞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우리나라에 십이지(十二支)가 처음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 시대로, 당나라의 십이지를 기존 종교인 불교와 결부(結付) 시켜, 나름대로 독창적인 십이지상(十二支像)을 성립(成立), 전개(展開) 시켜나간다.<sup>17)</sup> 이러한 양상은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까지 크게 유행하며,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쇠퇴(衰退) 하게 되는데, 불교와 유교(儒敎)의 종교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거 왕릉을 수호하던 시간(時間)과 방위(方位)의 신, 십이지는 점차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sup>18)</sup> 그 후 십이지는 조선 후기 불화(佛畵)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기존의 형태가 아닌 약사여래(藥師如來)의 신중(神衆)<sup>19)</sup>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sup>20)</sup>

신중(神衆)이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석가모니와 여래, 보살을 수호하는 불교의 민간 신들을 말한다. 그들은 불경(佛經)과 설화(說話) 속에서 불교의 교리(敎理)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이며, 불법(佛法)을 보호하는 존재였으나, 각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법을 지킨다’는 부분의 해석이 확대되어, 수호의 범위가 국가와 사찰, 개인으로까지 넓혀지게 되었다.

17) 천진기, 『십이지의 문화 체계』, 국립민속박물관, 2003, p.55

18) 위의 책, p.61

19) 신중(神衆) : 불교의 수호신, 호법신으로 여래 상이나 보살상과 같이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대상과 신앙인, 불법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 민간 신을 말한다. 통일신라 시대에서부터 신앙 되었으나, 조선 시대에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크게 유행한다.

20) 천진기, 『십이지의 문화 체계』, 국립민속박물관, 2003, p.62

수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 집안의 평화, 시험 합격, 장수와 같은 소원을 들어주는 기복적 신앙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선조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이 되어 온 신중은 그 형태가 주조신(조왕)<sup>21)</sup>, 주산신(산신), 주정신(용왕), 칠성(七星)<sup>22)</sup>, 사천왕(四天王)<sup>23)</sup>, 토지신 등으로 다양하나, 그중 십이지 형상의 신중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십이지의 시간과 방위의 개념, 불교 신중의 기능, 한국 전통의 무속신앙 등이 교차적으로 결합(結合)되어,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sup>24)</sup>

신중 형태의 십이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 나무, 돌, 청동 등으로 작게 만들어져 부장품(副葬品)<sup>25)</sup>으로 묘(墓)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종이 부적의 형태로 간소화되어 사람들이 품에 지니고 다니며, 액(厄)을 막으려 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면을 통해 무속 신앙적, 민간 신앙적 면모를 더 강하게 띄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본인은 과거 선조들이 힘든 일과 마주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간절함을 담아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도드렸고, 그 존재를 형상화하여 지니고 다님으로써 복(福)을 부르고 액(厄)을 피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상들의 긍정적인 마음과 좌절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신앙적이고 수호적인 신중 십이지의 형상에서 모티브를 얻게 되었고, 십이지 안에 과거의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 수호를 희망하는 마음을 실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

21) 주조신(조왕) : 부역의 신. 민간신앙에서는 성주신, 터주신과 함께 가정의 신으로 나타난다.  
22) 칠성(七星) : 칠원성군의 준말로 비를 내려 풍년을 이루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며, 재물을 준다고 믿어진다. 인간의 길화홍복을 주재한다는 북두칠성의 신이다.  
23) 사천왕(四天王) : 불교에서 말하는 4인의 수호신. 4종의 다른 종류의 동물을 주제로 한 무신으로 사찰에서는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의 천왕문에 사천왕상을 봉안하고 있다.  
24) 허균, 「<65> 통도사 십이지 변화(幡畫) 우리나라 특유의 춤추는 불교 신장」, 『불교신문』, 2006.4.15.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03>  
25) 부장품(副葬品) : 무덤 옆에 시체를 안치할 때 함께 넣어 매장하는 물품.

다음 장을 통해 작품에 담긴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과 염원(念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것에 맞게 재 조형된 십이지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2. 본인 작품 분석

### 1) 개인적 소망의 형상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 그 대부분을 감내하며 지낸다. 그러나 종종 감당하지 못하고 초월적인 존재에 마음을 기대어야 할 때가 오는데, 과거의 선조들은 그럴 때마다 안녕을 기원하는 일로 달 아래 정화수(井華水)를 떠놓고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기도(祈禱)를 드리기도 하고, 나무에 사당(社堂)을 지어 서낭당(城隍堂)<sup>26)</sup>을 만들고 제(祭)를 올리기도 하였다. 신중(神衆)도 그중 하나인 형태로 희망과 염원(念願)을 형상화하여 만든 존재이다.

본인 역시 과거, 따돌림이라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었다.

그 과정은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있지 않았던 일까지 덧붙여지며, 눈덩이처럼 이야기가 커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겁고, 외로웠었다.

그래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친구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며 외로운 생활을 견뎌내곤 했었는데, 친구에 친구를 건너 왕따였던 과거가 밝혀지면서 고등학교 생활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를 반복하는 날이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속으로 기도하곤 했다.

*어서 이런 외로운 생활이 끝나게 해달라고, 소문보다 나를 믿어 주는 친구*

---

26) 서낭당(城隍堂) : 마을의 수호신으로 서낭을 모셔놓은 신당. '성황당(城隍堂)'이라고도 한다. 서낭신을 모신 신역으로서 신앙의 장소이다. 이곳을 지날 때는 그 위에 들 세 개를 엮고 세 번 절을 한 다음 침을 세 번 뱉으면 재수가 좋다는 속신이 있다.

를 사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과정에서 점차 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만든 상상 속 존재에게 기도하고 의지했는데, 이는 과거 선조들이 만들어 낸 신종과 같은 개인의 바람과 염원이 만든 존재였을 것이다.

상상의 존재와 잊고 싶은 기억, 상처 난 자아(自我)는 아직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며,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는 이 오래된 감정을 해소하고자, 우리에게 친숙한 십이지라는 매개체에 과거 본인의 기도를 들어주던 상상 속 존재를 투영(投影) 하였고, 신앙인(信仰人)을 수호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神)으로 형상화하였다.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그림이 과거 본인과 같이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작품1】 子 (쥐),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신중(神衆) 형태의 십이지(十二支)는 평상적으로 사람의 몸체에 동물의 머리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나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당장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자세로 서 있다. 또 무섭고 위협적인 표정을 지은 것으로 묘사(描寫) 되어왔는데, 그로테스크하고 무서운 기존의 십이지와는 달리 본인의 작품 속 십이지는 지친 사람들의 품에 당장이라도 달려와 안겨, 위로를 전할 것 같은 귀여운 아이의 얼굴을 하고, 동물들의 특징을 가진 형상으로 나타난다.

신(神)이기도 한 십이지의 얼굴을 아이로 표현한 데에는 보는 이의 위로 외에도 다른 의미가 더 존재한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老子: ?~?)는 “어린아이란 생명의 원초적(原初的) 상태이자 부드러움의 상징이다.”<sup>27)</sup>라 말했다.

그것을 보며 본인은 아이의 얼굴을 빌려 부드러움, 역동(力動)적인 생명력,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함, 신성함을 이미지로 전달하고자 했다.

---

27) 박석(2005), 『대교약술』, 들녘, p.33



【작품2】 亥 (돼지),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8



【작품3】 Drawing, 종이에 연필, 7.5cm×9cm

【작품 3, 4】

본문 1장 1절에서 서술하였던 ‘십이지(十二支)의 상징’ 중, 양(未)의 의미에서 다정함과 온순함, 은혜로움은 타인(他人)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털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양의 성격처럼 둥글둥글한 원을 주로 사용하여 털을 그려주었다. 또, 특유의 동공을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의인화(擬人化) 된 십이지의 양을 완성하였다.



【작품4】 未 (양),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5

<十二支> 시리즈 속에 아이의 얼굴과 동물의 형상 말고도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있다.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응시(凝視) 하는 눈동자이다.

눈동자는 예로부터 주술적인 미신(迷信)이 많이 내려온 신체 부위 중 하나로 악마의 눈(Evil eye)은 타인을 향한 저주(呪呪), 재앙(災殃)을 의미하고, 물리적인 해(害)를 가하는 존재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와 상반(相反)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신(神)의 눈동자는 가호(加護)와 비우(庇佑)<sup>28)</sup>를 상징하기 때문에, 독(毒)이 든 술을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술잔에 그려져 사용되기도 하고, 허리띠로 제작돼 착용되기도 했다. 또,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져 문 앞에 놓였는데 이는 신의 눈이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액(厄)을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29)</sup>

아직도 터키에서는 ‘나자르 본주(Nazar boncuğu)’<sup>30)</sup>라고 하는 강력한 악마의 눈이 수호 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이 악마의 푸른 눈을 집안과 밖, 나무 등에 장식하여 ‘나를 향한 타인의 저주(呪呪), 질투 어린 눈동자’로부터 보호받는다.<sup>31)</sup>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악마의 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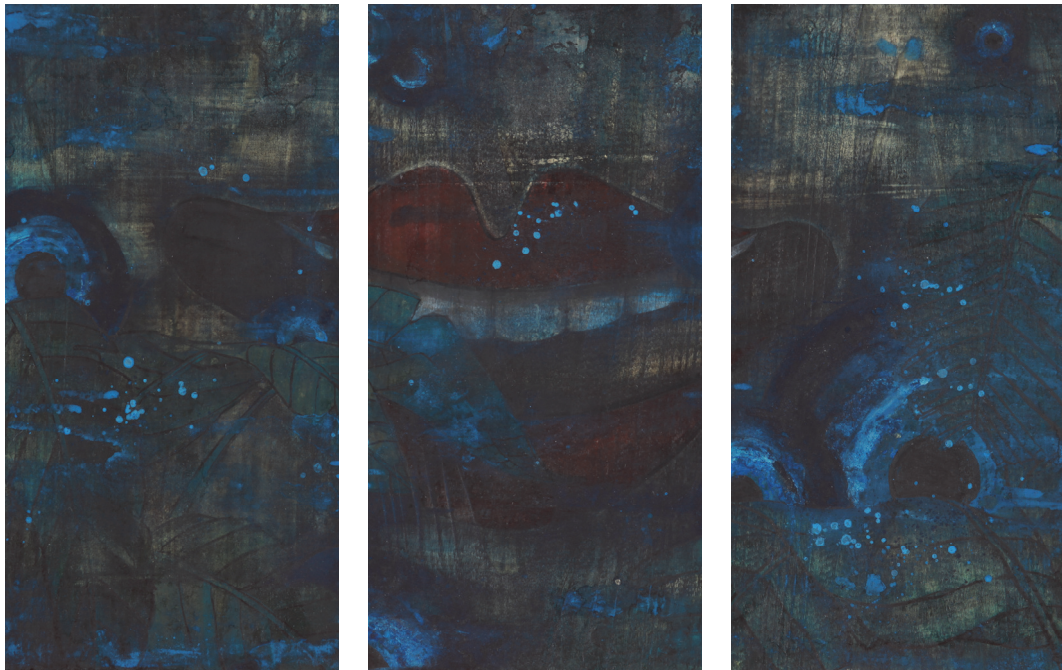
28) 비우(庇佑) : 비호(庇護)와 같은 말. 감싸주고 보호함.

29) 네이버 지식백과, 『악한 눈』,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top&where=nexearch&query=%EC%95%85%ED%95%9C+%EB%88%88&oquery=riss&tqi=TwZ87dpVuEdssZEtbydsssstXR-145996](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t.top&where=nexearch&query=%EC%95%85%ED%95%9C+%EB%88%88&oquery=riss&tqi=TwZ87dpVuEdssZEtbydsssstXR-145996)

30) 나자르 본주우(Nazar boncuğu) : 터키의 부적이다. 푸른 유리에 악마의 눈이 그려져 있으며, 재앙을 물리친다고 한다. 터키의 대표적인 기념품이다.

31) 네이버 지식백과, 『나자르 본주』,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E%90%EB%A5%B4\\_%EB%B3%B8%EC%A3%BC%EC%9A%B0](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E%90%EB%A5%B4_%EB%B3%B8%EC%A3%BC%EC%9A%B0)

본인은 이런 눈동자의 강렬한 이미지와 상징성, 주술적인 의의(意義)를 참고하여, 악마의 눈(Evil eye)을 모티브로 과거 <恨>시리즈를 작업하였고, 이번 <十二支>시리즈에서의 눈은 신(神)의 눈동자를 뜻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방(四方)의 액(厄)을 막는 형상으로 시각화(視覺化) 하였다.



【작품5】 恨(한) 21, 나무에 채색, 27.5cm×8.3cm, 2017



【작품6】恨 (한), 나무에 채색, 72.7cm×60.6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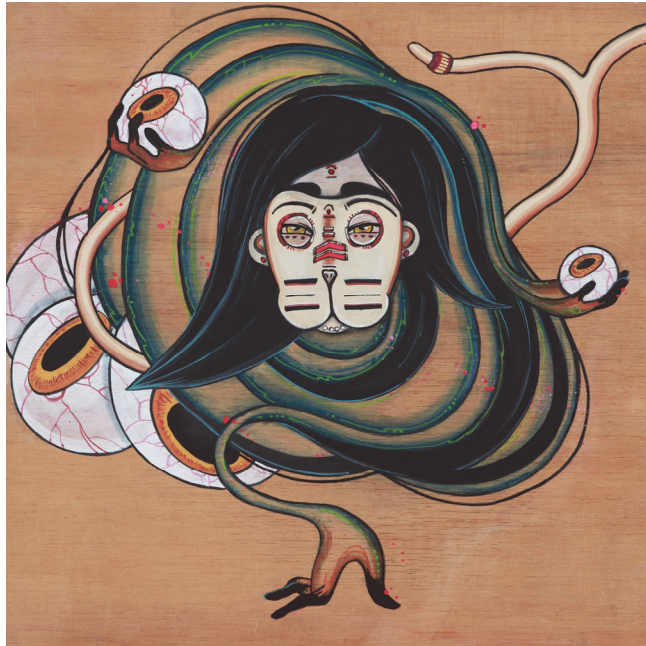
본인은 눈동자를 작업에 많이 활용하는데, 위의 작품처럼 악마의 눈(Evil eye)으로 타인이나 본인을 감시하는 역할로 등장 시키기도 하고, 눈물을 비유(比喩) 하는 매체로 묘사(描寫) 하기도 한다.

## 2) 나뭇결의 질료 적 표현

본인이 <十二支>시리즈를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십이지’라는 한국 전통의 주제에 맞게, 동양적인 느낌을 내면서 현대적인 세련됨을 잃지 않는 것과 동양화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동양화(東洋畫)와 서양화(西洋畫)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재료 기법(材料技法), 표현기법(表現技法)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회화(繪畫)’로써 작가(作家)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만 초점(焦點)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작업하기 편한 오일 파스텔, 색연필, 크레파스, 목탄 등의 재료를 선호하면서, 동양화 특유의 맑고 투명한 느낌, 계산된 여백(餘白), 탄력적인 선의 기운, 색의 강(強)·약(弱)을 담은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본인은 그런 점이 안타까워, 동양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물감의 투명함, 여백, 선적인 아름다움, 색의 차분함 등을 표현하면서도 충분히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작품7】 申 (원승이),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우선, 한국 색채의 아름다움이라 하면 단청(丹青)<sup>32)</sup>을 빼놓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의 선명한 빛깔로 아름답고 장엄(莊嚴)하게 그려진 단청은 오행사상(五行四象)에 따라 오방색(五方色)<sup>33)</sup>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밋밋한 목조 건물의 외벽을 장식한다.

처음에는 색상의 참고만을 위해 찾아 본 단청에 벽사(辟邪)<sup>34)</sup>로서의 의미와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심이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32) 단청(丹青) : 오행 사상에 따라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다섯 가지의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

나무를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칠 공사이기도 했으며, 건물의 격과 쓰임에 따라 문양을 달리했는데, 이때 문양은 벽사의 의미와 화재를 막아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33) 오방색(五方色) : 한국의 전통 색상.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黃), 청(靑), 적(赤), 백(白),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34) 벽사(辟邪) :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

본인이 보이고자 하는 십이지와 유사한 점을 띄는 단청의 특징적인 면을 활용하여 <十二支>시리즈를 진행했는데, 색상 표현 부분이나 종이 대신 나무 위에 직접 작업한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나무라는 소재(素材)를 선택하여, 작업을 하게 된 연유(緣由)에는 나무가 우리 민족의 정서(情緒)와 잘 맞는 소재라는 점, 자연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라는 점, 모진 역경(逆境)과 고난(苦難)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작품8】辰 (용),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7



【작품9】丑 (소),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6

이러한 나무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무 판을 잘 선정(選定) 해야 하는데, 자연의 나무는 용이가 심하거나, 톤이 균일하고 크기 또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베니아판을 주로 사용한다.

본인 또한 이번 시리즈에서 30cm×30cm이라는 정 사각의 판을 이용하고자 자연의 나무를 사용하는 대신 나무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베니아 판을 채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화판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작업으로 아교포수를 해주어야 한다. 아교포수란 종이와 나무의 표면을 코팅하여 물감이 스며들지 않고, 쌓여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초벌 작업을 말한다.

종이에 할 때와는 다르게, 나무라는 소재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작업을 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나무의 결 대로 그림이 번지거나,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농도의 아교 물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반복하여 칠해준다.



【작품10】酉 (닭),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7



【작품11】午 (말),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7

아교포수 과정을 마친 화판 위에 미리 떠 놓은 스케치를 옮겨 먹으로 선을 그려주고, 편채(片彩)와 분채(粉彩)를 이용해 색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 주는데, 편채는 물계 타서 담(淡)하게 표현하고, 분채는 진한 농도로 개어 강하게 올려준다.

이렇게 하면 편채의 맑고 가벼운 느낌과 분채의 묵직하고 다소 답답할 수 있는 느낌이 서로 조화(助化)를 이루어, 그림 속의 무게 균형이 알맞게 나타난다.

색 표현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念頭)에 두고 작품을 그려나갔는데, 첫 번째는 나무의 느낌이 물감에 묻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본인의 작품과 잘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나무 위에 그림을 그린다 하여도 나무가 주는 투명함과 재질의 느낌이 작품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유화(油畫)나 스티커로 작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인은 나무의 특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편채(片彩)를 열게 풀어 그림에 올리고 물붓으로 닦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이때 색이 맑고 투명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편채의 농도(濃度)와 정도에 차이를 두어 십이지(十二支)를 표현하게 되었다.

맑고 투명한 편채로만 작업을 완성한다면, 임팩트가 없는 가벼운 그림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 분채(粉彩)를 이용해 그림에 무게 중심(中心)을 잡아 주었고, 이러한 물감의 풀어짐과 잡아움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그림 안에 울동감(律動感)을 나타내었다.



【작품12】 巳 (뱀), 나무에 채색, 30cm×30cm, 2015

두 번째로 초점(焦點)을 두었던 것은 동물 고유(固有)의 색 표현보다는 염원(念願)의 형상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색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색으로 본인은 푸른색을 골랐는데, 청색(靑色)<sup>35</sup>은 보았을 때 맑은 하늘을 떠올리게 해 마음에 청량감(淸涼感)을 주는 색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띄는 색이며, 푸르른 자연을 뜻해 재생(再生)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또, 앞에서 서술한 한국의 전통 색인 오방색(五方色)의 하나로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內包) 하는데, 그 안에서도 청색(靑色)은 귀신(鬼神)을 물리치고, 복(福)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35) 오방색 (靑) :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에 해당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즉, 그림 속에 주로 사용된 푸른색은 작품을 보는 이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고, 각자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冀願) 하며 복을 빌어주는 본인의 마음을 대변(代辨) 하는 색인 것이다.



【작품13】 卯 (토끼), 나무에 채색, 30×30cm, 2016

그 외에 정사각형이라는 30cm×30cm의 작은 나무판을 선택한 이유로는, 이 규격화된 틀이 남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나를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며, 타인 눈치 보기 바빴던 본인의 과거 마음속 작은 틀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인을 괴롭히는 과거 의식 속의 틀을 화판으로 만들고, 그 안에 수호신(守護神)이라 할 수 있는 십이지(十二支)를 그려줌으로써, 이제는 타인과 내가 다를지 언정 나(我) 자신을 믿고 존중하며,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依支)를 담았다.

작품 안에 구체적인 공간감(空間感)을 형성하지 않은 점과 십이지가 정중앙(正中央)에 자리하는 중앙 집중적 구도(中央 集中的 構圖)를 사용한 점은 그 결심(決心)에 대한 확고함(確固)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신앙(信仰)이며 사상(思想)의 산물(產物)인 십이지(十二支)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본인의 경험 속 기억의 환기와 개인적 바람을 담은 새로운 십이지 형상 표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개인의 띠 동물, 한 해, 혹은 하루의 운세를 알기 위한 매개체(媒介體)로 만 인지(認知) 하던 십이지의 기원(起源)과 역할(役割), 상징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과거 십이지가 가지던 민간신앙적 의미에 본인의 아픈 기억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개인의 소망을 담아 작품으로 제작(製作) 하였다.

십이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變遷) 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외에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혹은 사라졌을, 수많은 우리의 옛 문화에 대하여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관심만 있다면 언제나 옛 것은 새로운 것의 좋은 모체(母體)가 되며, 과거의 이미지는 도태(淘汰) 되어 사라지지 않고,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맞추어 변화하고, 이어져 나간다. 다만 옛 문화의 재현(再現)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통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정립(定立) 해야 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구는 십이지(十二支)와 단청(丹青), 오방색(五方色)이라는 전통에서 시작되어,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과정(過程) 이었다.

본인은 이 연구를 주춧돌(礎石) 삼아, 앞으로도 전통적 모티브의 계승(繼承)

과 현대적 재 표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라지지 않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허 균, 『십이지의 문화사』, 들베개, 2010
- 천진기,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 서울대학교, 2008
- 정하섭 글/이춘기 그림, 『열두 띠 이야기』, 보림출판사, 2006
- 박 석, 『대교약졸』, 들녘, 2005
- 천진기, 『한국동물 민속론』, 국립민속 박물관, 2003
- 천진기, 『십이지의 문화 체계』, 국립민속 박물관, 2003

### 학위논문

- 김영량, 『상징과 모티브를 통한 내적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주환, 『도제 장골 용기 개발에 관한 연구 : 십이지신상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송명숙, 『일본 민담 속의 십이지 동물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최지연, 『한국사찰의 신중 신앙과 민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권은주, 『십이지상을 활용한 전통미술지도 방안 :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안미현, 『십이지신을 소재로 한 캐릭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오미화, 『모란도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 : 본인의 2006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혜민, 『나뭇결을 살린 自然이미지의 心象 表現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최재일, 『십이지상 도제 풍경 형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숙례,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십이지상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천진기, 『한국 띠 동물의 상징체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나자르 분주』,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E%90%EB%A5%B4\\_%EB%B3%B8%EC%A3%BC%EC%9A%B0](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E%90%EB%A5%B4_%EB%B3%B8%EC%A3%BC%EC%9A%B0)

네이버 지식백과, 『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4930&cid=46670&categoryId=46670>

네이버 지식백과, 『악한 눈』,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query=%EC%95%85%ED%95%9C+%EB%88%88&oquery=riss&tqi=TwZ87dpVuEdssZEtbydsssstXR-145996](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 ty.top&where=nexearch&query=%EC%95%85%ED%95%9C+%EB%88%88&oquery=riss&tqi=TwZ87dpVuEdssZEtbydsssstXR-145996)

## 인터넷 기사

이학범, 2018.1.24,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수의학-임동주 수의사」,

『DailyVET』 ,

<http://www.dailyvet.co.kr/news/etc/89411>

허균, 2006.4.15., 「<65> 통도사 십이지 변화(幡畫) 우리나라 특유의 춤추는  
불교 신장」, 『불교신문』 ,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803>

# ABSTRACT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Images through the Twelve Earthly Branches**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An, Sang Eu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Both in the East and West, people had huge curiosity about the future and the curiosity to know about the future led to studies, outcomes and creations in various areas ranging from natural phenomena to the cosmos. Western astrology was developed to foretell the future, and the celestial sphere was divided into several areas, each representing an animal or an object. In the East, the twelve earthly branches and the four cardinal deities were developed by associating animals to directions, hours and seasons, and symbolism was assigned to those animals for using them according to directions, hours and seasons. The animals of the twelve earthly branches were worshipped as an object of religion because they were believed to have the a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and make their dreams come true.

At present, there remains only the symbolic aspect of the twelve earthly branches. At the beginning of every year, newspapers and TV news broadcasts cover the animal of the year, along with its symbolism as a guardian of the year. People hope that they will have a good year ahead just as the character and symbolism of the animal of the year.

Korea's representative traditional culture, the twelve earthly branches have long existed with the Korean people in various forms and meanings. I intend to combine the shamanistic aspect of the twelve earthly branches and my wish based on my past experience to reconstruct them in a modern fashion using the material wood.